

‘전관왕 해피엔딩’ 최혜진 드라마

시즌 최종전까지 상금·평균타수 경쟁 장하나의 실수로 타이틀 싸움 막 내려 최혜진 “마무리가 극적이라 실감 안나”



최혜진

163야드 내리막 파3 13번 홀. 그린 위로 잘 떨어진 장하나(27·비씨카드)의 티샷이 끊임없이 굴러가더니 러프를 지나 해저드로 푹푹 빠지고 말았다. 곧바로 터져 나온 장탄식.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타이틀 경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약관의 여왕’ 최혜진(20·롯데)이 KLPGA 투어 사상 6번째 전관왕이 됐다. 올 시즌 최종전까지 전개된 타이틀 싸움에서 장하나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대상과 다승 그리고 상금과 평균타수 부문을 모두 싹쓸이했다.

●최종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펼쳐진 경쟁 최혜진은 10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2·6632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총상금 6억 원·우승상금 1억 2000만 원)에서 장하나와 경쟁하던 상금왕과 평균타수상마저 모두 품었다. 이번 대회에서 3오버파 219타 공동 35위로 부진했지만, 기존 쌓아놓은 성적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직전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으로 대상과 다승 부문 1위를 일찌감치 확정된 최혜진은 이번 대회에서 상금과 평균타수 1위를 놓고 장하나와 최후의 대결을 펼쳤다. 상금은 최혜진이 12억314만2636원, 장하나가

최혜진, KLPGA 투어 역대 6번째 전관왕 등극		
타이틀	1위(기록)	2위(기록)
대상	최혜진(564점)	박민지(484점)
상금	최혜진(12억716만2636원)	장하나(11억5772만3636원)
평균타수	최혜진(70.4576타)	장하나(70.5194타)
다승	최혜진(5승)	임희정(3승)

※ 다승왕 부문은 2006년 신설

11억4572만3636원으로 만약 최혜진이 톱10 밖으로 밀려나고 장하나가 단독 준우승 이상을 차지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 평균타수 역시 둘의 타수 차이가 11타 이상 벌어질 경우 역전이 가능했다.

총 3라운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최혜진은 첫째 날과 이튿날 각각 1오버파와 3오버파로 부진하면서 흔들렸다. 반면 장나는 2라운드까지 4언더파를 기록하고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같은 흐름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다. 장나가 초반 2연속 버디를 잡아 우승권으로 올라선 반면, 최혜진은 전반 내내 이른 파로 주춤했다.

●역대 6번째 전관왕 등극

그러나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전개되던 시점에서 장하나의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다. 파3 13번 홀. 장하나의 아이언 티샷이 그린 위로 잘 떨어졌지만, 공이 계속 굴러간 뒤 결국 물가 해저드로 빠졌다. 통탄의 더블보기. 타이틀 역전은 여기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고, 최혜진은 올 시즌 상금 12억7216만2636원과 평균 70.4576타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06~2008년 신지애, 2009년 서희경, 2010년 이보미, 2014년 김효주, 2015년 전인지, 2017년 이정은6의 전관왕 계보를 이은 최혜진은 “올 한 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기쁘다. 마무리가 극적이라 (전관왕 등극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활짝 웃었다. 최혜진은 이어 “4개 타이틀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상은 평균타수상이다. 꾸준하게 한 시즌을 치러야 받을 수 있는 상 아닌가. 또 올 시즌 개막 전부터 욕심이 났던 상이다”고 숨겨놓은 속마음을 말했다. 천안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골프

3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낙시꾼 스윙’ 최호성 JGTO 통산 3승 달성

헤이와·PGM 챔피언십 정상



최호성

“호랑이가 오키나와에서 춤을 췄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낙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46)의 우승 소식이다.

최호성은 10일 일본 오키나와 PGM 프리조트(파71·7226야드)에서 열린 헤이와·PGM 챔피언십(총상금 2억 엔·약 21억 원) 최종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고 14언더파 270타로 정상을 밟았다. 올 시즌 자신의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첫 승이자 통산 3승째로 우승상금은 4000만 엔(4억2300만 원)이다.

최호성은 드라이버 스윙 피니시 동작에서 낙시꾼처럼 몸을 비틀며 클럽을 낚아채듯 들어올리는 자세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일반 골프팬들은 물론 스타플레이어들까지 관심을 갖는 선수가 됐다.

1타차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최호성은 전후반 각각 버디 2개씩을 잡고, 12언더파를 기록한 이마히라 슈헤이(27·일본)를 2타 차이로 제쳤다. JGTO 투어는 최호성의 가운데 이름이 ‘호랑이 호(虎)’라는 점을 착안해 “호랑이가 오키나와에서 춤을 췄다”는 제목의 기사로 우승 소식을 알렸다. 최호성은 주무대인 일본에서도 크나큰 인기를 자랑한다.

한편 같은 날 일본 시가현 세타 골프클럽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에선 김효주(24)가 14언더파 202타로 준우승을 기록했다. 우승은 3타 앞선 스즈키 아이(25·일본)가 차지했다.

고봉준 기자

‘늦게 핀 꽃 한 송이’ 안송이

ADT캡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프로 데뷔 10년 만에 마침내 첫 승 “꿈같다...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

236개 대회 출전, 182차례 컷 통과, 38번 톱10 진입 그리고 3회 준우승.

우승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오독이’ 안송이(29·KB금융그룹)가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KLPGA 투어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진 10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루키 이가영(20·NH투자증권)을 1타 차로 제치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무려 237개 대회 출전 만의 우승으로 KLPGA 투어 역사상 안송이보다 첫 승이 오래 걸린 선수는 없었다. 2010년 데뷔 이후 굴곡졌던 10년이라는 세월이 축

소판처럼 최종라운드에서 펼쳐졌다. 안송이는 같은 챔피언십에서 플레이한 후배 이가영과 얹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다. 역전과 동점, 재역전이 계속된 시소 게임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파3 16번 홀과 파4 17번 홀에서 나왔다. 1타 뒤지던 안송이가 16번 홀에서 장거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9언더파 공동선두가 됐다. 이어진 17번 홀에서 이가영이 1타를 잃으면서 순위가 뒤바뀌었고, 안송이는 마지막 18번 홀(파5)을 이가영과 같은 파로 지키면서 정상을 밟았다.

생애 첫 우승상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안송이는 “정말 꿈같다. 우승을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께 큰 선물을 드리는 기분이다. 오늘 정말 많은 후배들이 우승을 기뻐해줬는데 고깃집을 빌려서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다”고 벅찬 소감을 말했다.

천안 | 고봉준 기자



‘오독이’ 안송이(왼쪽)가 10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최종전 ADT캡스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뒤 아버지와 포옹하고 있다. 10년 만에 우승의 결실을 맺은 그는 “정말 꿈같다”는 벅찬 소감을 밝혔다.

사진제공 | KLPGA

100 2013 ~ 2019 7년 연속 한국프랜차이즈 100대 기업선정

30년 매장 운영으로 검증된

김영희 동태집 & 코다리냉면

돈버는 메뉴
소자본 창업

업종변경
본사파격지원

해산을 손질 원팩 공급

※ 전국 140개 가맹점 - 안정적 운영중

전국 11출장 방문
상담 서비스 02)412-3375

김영희 동태집 & 코다리냉면 대표메뉴!

계절, 시간대(점심, 저녁)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 매출 보장 메뉴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테이블

점류 동문어해물찜, 동문어코다리찜,
해물찜, 아구찜, 코다리찜, 동태찜
전골류 동문어해물전골, 동태전골,
동태해물전골

탕류 동태탕, 대구지리탕, 알탕, 내장탕
신사류 녹두삼계탕, 치즈돈까스, 꼬막비빔밥
코다리냉면, 물냉면
기타류 동태만두/황태만두, 감자전

